

징글징글 ‘염소의 저주’…104년째 “ 음메 기죽어”

ML 인사이드

시카고 컵스



시카고 컵스가 월드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우승한 때는 1909년이다. 미국 프로스포츠를 통틀어서도 가장 긴 우승 가뭄이다. 이를 두고 많은 컵스 팬들은 ‘염소의 저주’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게다가 보스턴 레드삭스가 ‘밤비노의 저주’를 쏜 뒤로는 컵스 팬들의 조바심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1908년과 1909년 월드시리즈를 2연패한 컵스는 이후에도 1945년까지 7번이나 내셔널리그 정상을 밟았지만 월드시리즈 우승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1945년 10월 15일 컵스의 광적인 팬 빌리 사이아니스는 자신의 이름을 딴 애완 염소 빌리를 데리고 리글리필드를 찾았다. 염소에게서 나는 악취 때문에 입장을 거부당한 사이아니스는 “컵스가 이번 시리즈에서 패배를 당할 것이고, 다시는 월드시리즈에 진출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공교롭게도 그날 벌어진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컵스가 패해 시리즈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결국 3승4패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게 우승 트로피를 내주고 말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1945년 이후 컵스는 정말 저주에 걸린 듯 단 한 차례도 월드시리즈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되살아난 ‘염소의 저주’

한동안 잠잠했던 ‘염소의 저주’가 수면 위로 재부상한 때는 2003년이다. 10월 15일 리글리필드에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6차전이 열렸다. 시리즈 전적 3승2패로 앞서던 홈팀 컵스는 3-0으로 리드한 8회초 1사 2루, 월드시리즈 진출까지 아웃카운트 5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마운드에는 정규시즌 18승의 마크 프라이어가 버티고 있던 터라 컵스 팬들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염소의 저주’가 되살아났다. 플로리다 말린스 2번타자 루이스 카스티요의 타구가 높이 떠 좌측 파울지역으로 향했다. 볼을 쫓아 달려간 컵스 좌익수 모이세스 알루가 파울지역 펜스에 기대며 점프했지만, 한 팬의 손에 맞고 굴절된 볼은 관중석으로 떨어져 파울로 처리됐다. 팬의 방해만 없었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구였다고 판단한 알루는 글러브를 내용명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빅리그 2년차였던 프라이어는 평정심을 잃고 갑자기 제구 난조를 보이며 카스티요를 볼넷으로 내보냈다. 이어 이만 로드리게스를 상대로 0B-2S의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성급하게 승부를 걸었다가 적시타를 허용해 3-1로 쫓겼다. 그러나 더스티 베이커 컵스 감독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프라이어의 구위를 믿었기 때문이다. 프라이어는 4번 타자 미겔 카브레라를 유격수 땅볼로 유도했다. 충분히 병살로 연결해 이닝을 끝낼 수 있었지만, 유격수 알렉스 곤잘레스가 어이없는 실책을 범했다. 결국 데릭 리에게 동점 2루타를 허용한 뒤 프라이어는 강판됐다. 기세가 오른 말린스는 제프



시카고 컵스는 1909년 이후 무려 100년 넘게 ‘염소의 저주’를 풀지 못하며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있다. 저주는 2003년 되살아났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6차전, 컵스 팬인 스티브 바트먼이 파울 타구를 손으로 건드리며 좌익수 모이세스 알루가 공을 놓쳐버렸다. (사진①, ②) 이후 컵스는 플로리다에 무려 8실점하며 역전패했다. 컵스 팬들은 당시 공을 파괴하는 처형식까지 치르며 저주가 풀리기를 기원했다. (사진③) ‘염소의 저주’를 풀기 위한 노력이 눈물겹다. 빌리 사이아니스의 조카 샘(왼쪽)과 그의 아들 톰(오른쪽)이 염소의 후손을 데리고 2003년 리글리필드에 입장하고 있다. 저주를 풀려는 의식의 일환이었다(사진④)

스포츠동아DB

100년 넘게 우승 못해…美 프로스포츠 회장 2003년 NL 챔피언십시리즈 6차전 저주의 부활 WS행 직전 파울공에 손댄 바트먼 공공의 적 에이스 프라이어는 평정심 잃고 역전패 눈물 저주 타파 온갖 노력 불구 올해 전망도 어두워

코나인의 희생플라이로 역전에 성공했고, 마이크 모데카이의 주자 일소 2루타와 후안 피에르의 적시타로 순식간에 전세를 8-3으로 뒤집었다. 7차전에서도 말린스는 케리 우드를 내세운 컵스를 상대로 3-5로 뒤지던 경기를 9-6으로 뒤엎고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 말린스는 월드시리즈에서 뉴욕 양키스를 4승2패로 제압해 구단 역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다.

●저주가 뭐길래!

승부의 분수령이 된 6차전에서 알루의 수비를 방해한 컵스 팬 스티브 바트먼은 줄지어 공공의 적이 됐다. 안전요원과 경찰의 호위 속에 리글리필드를 빠져나가던 그를 향해 팬들은 매주 세례와 온갖 쓰레기,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그의

신상이 공개되자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도 끊이지 않았다. 시카고 경찰은 한동안 바트먼의 집을 철통같이 지켜야 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켄 부시 주지사가 바트먼에게 플로리다주에 집을 마련해주겠다고 제의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만약 컵스가 6차전을 잡고 월드시리즈에 진출했다면 ‘바트먼 사건’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컵스 팬들은 1969년에도 ‘염소의 저주’에 희생양이 됐다고 믿고 있다. 후반기 한때 컵스는 17.5경기차로 크게 리드를 해 월드시리즈 진출은 떼어 놓은 당상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9월 10일 뉴욕 메츠와 원정경기를 치르던 도중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다. 세이스타디움에 갑자기 나타난 검은 고양이가 그라운드를 가로질러 달려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그 경기에서 패한 컵스는 시즌 막판까지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월드시리즈 진출 티켓을 메츠에 넘겨주고 말았다. 메츠 또한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4승1패로 누르고 팀 역사상 첫 월드시리즈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저주는 언제쯤 풀릴까?

그동안 ‘염소의 저주’를 풀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저주의 당사자 빌리 사이아니스의 친조카 샘은 여러 차례 염소를 대동하고 리글

리필드를 찾았다. 개막전에 염소가 등장한 1984년과 1989년 모두 컵스는 지구 우승을 거머쥐었다. 심지어는 저주를 다른 팀에 떠넘기려는 시도도 있었다. 2003년 일부 컵스 팬들은 지구 라이벌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홈구장인 미닛메디파크에 염소와 함께 입장하려고 했다. 당연히 거부당할 것으로 알고 한 고의적 행동으로 ‘염소의 저주’를 애스트로스에 넘겨주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그해 10월 벌어진 ‘바트먼 사건’으로 인해 이들의 시도는 결국 무위로 돌아간 꼴이 됐다. 2012년 2월 26일 스스로를 ‘저주 타파의 선봉장’이라고 일컫는 5명의 팬들이 리글리라는 이름의 염소와 함께 컵스의 스폰서인 아리조나주 메사에서 시카고 리글리필드까지 1739마일(약 2800km)을 걸어가는 일도 벌어졌다. 이들의 간절한 염원과 달리 컵스는 지난해 61승에 그쳐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29위에 머물렀다. 올 시즌 전망도 그다지 밝지는 않다.

●저주에 희생된 영건들

2003년은 ‘염소의 저주’를 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로 여겨진다. 예기치 않은 ‘바트먼 사건’에 발목을 잡혔지만 우드와 프라이어로 이어지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원투펀치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지휘봉을 잡았던 베이커 감

독은 두 신예투수를 혹사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프라이어는 2003년 211.1이닝이나 던졌는데 정규시즌 경기당 평균 투구수가 113.4개에 달했다. 특히 9월에는 무려 평균 126구를 던졌고, 포스트시즌에서도 120구나 됐다. 우드도 마찬가지로 정규시즌 211이닝을 던져 2년 연속 200이닝을 돌파했다.

‘컵스의 미래’로 불리던 우드와 프라이어는 2003년을 정점으로 나란히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었다. 잦은 부상이 원인이었다. 우드는 2008년 34세이브를 올리며 반짝했지만, 86승53패63세이브의 통산성적을 남기고 지난해 은퇴했다. 어깨와 팔꿈치 부상에 시달린 프라이어는 2006년을 끝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아예 종족을 감했다. 이제 32세인 프라이어는 추신수가 속해있는 신시내티 레즈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하고 빅리그 복귀를 노리고 있는데, 그에게 빛(?)이 있는 베이커 감독이 얼마나 배려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소 10년은 컵스의 마운드를 짊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우드와 프라이어는 어찌면 또 다른 ‘염소의 저주’의 희생양인지 모른다.



스포츠동아 미국 통신원

편집 | 김문규 기자 mikkang@donga.com 트위터@ mikkang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단 한번 ‘뉴 맨’!! 평생 단단한 놈!!



대표이사 서영숙

www.newm.kr

NAVER 뉴맨

네이버에 뉴맨을 검색하세요.

· 일본지사 T. 03-6278-9461
· 중국지사 T. 0433-286-5031

▶ 남자는 원한다!

킨제이 보고서에서 20대는 하루1회 30대 주4회 40대 주2회 50대 주1회 60대는 월3회 정도의 성생활을 한다는 보고를 낸바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성은 이보다 많은 횟수를 원한다. 특히 더 크고 강해져서 여성이 만족할 만큼의 시간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가지고 있다.

▶ 남자가 변한다!

‘뉴 맨’은 젊고 발기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더 크고 두꺼워져서 시간과 횟수의 연장을 원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기 강도도가 약해지고 중간에 시들어 약물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운 중년 이상의 남성에게 믿기 어려운 만큼 커지고 단단하고 강해져 횟수와 시간에서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준다.

▶ 최장! 최다의 기록! ‘뉴 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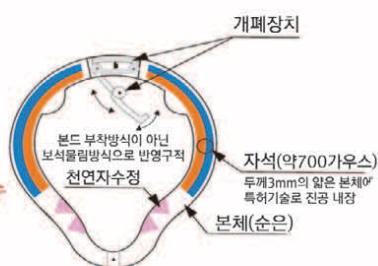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확대, 조루, 발기력 강화의 효능을 인정 ‘남성 성기능 강화용 링’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유일하게 발명특허를 받은 ‘뉴 맨’은 2005년 각종신문매체에 광고 판매를 시작, 현재 8년간 8천여회의 신문 광고로 단일제품 사상 전무후무한 최장기간, 최대매체의 광고기록을 세웠다. 또한 일본과 중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20여개국 수출, 50만 고객 돌파의 쾌거도 이루었다. 50만 고객의 의미는 100만 고객일 것이다.

▶ 왜 점점 커지는가?

음경 등·장맥위치와 역할을 고려한 입체적 디자인, 천연자수정의 원적외선, 700가우스의 자기장효과로 음경해면체의 혈액유입량이 평상시보다 30%정도 증가, 더 커지고 굵어지고 단단해진다. 이는 헬스로 근육과 몸집을

뉴맨 단면도

* 사이즈들 약 5~7mm정도 조절할 수 있도록 이중설계 되었음.



키우고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써 세력의 강한 발기와 관계의 횡단 마찰은 점점 더 크고 강한 남성을 만들어 준다.

지금까지 ‘뉴 맨’을 구입한 50만 가까운 남성대부분이 큰 사이즈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 왜 시간이 연장되는가?

음경몸통 성 신경을 감싸는 음경외피는 피스톤 운동시 팽팽해져서 귀두와 함께 여성기를 마찰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보편적인 외피는 팽팽하지 않아 밀리면서 몸통 성 신경을 자극하여 빠른 사정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뉴 맨’을 착용하면 커지고 굵어지는 효과로 팽팽해진 외피가 성신경의 자극을 줄여주어 시간을 연장시킨다.

▶ 8년간 지켜온 뉴맨의 약속!

‘15일 사용 후 불만족시 이유없는 반품, 전액환불!’

이 약속은 제품의 자신감과 회사의 책임감에 의한 변함없는 약속이다.



국내 유일 ‘성기능강화용 링’ 특허 획득



평상시 사이즈 단위 cm	뉴 맨 호 수
6.5이하	주문제작
6.5	1호
6.75	2호
7	3호
7.5	4호
7.75	5호
8	6호
8.25	7호
8.5	8호
8.75	9호
9	10호
9.25	11호
9.5	12호
9.75	13호
10	14호
10.25	15호
10.5	16호
10.75	17호
11	18호
11.25	19호
11.5	20호
11.75	21호
12	22호
12.25	23호
12.5	24호
12.75	25호
13	26호
13.25	27호
13.5	28호
13.75	29호
14	30호
14.25	31호
14.5	32호
14.75	33호
15	34호
15.25	35호
15.5	36호
15.75	37호
16	38호
16이상	주문제작

T.1577-5579, 010-7636-334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주)케이앤제이스포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6-1 한도빌딩 6층